

TOGETHER+

함께

Vol. 20 2016 WINTER



©Hosizora Foundation, Indonesia 2013

TOGETHER+ 함께

Vol. 20 2016 winter



04



06



10



14



16



18

비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미션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발행일 2016. 12. 02. 발행인 송월주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디자인 (주)착한넷 <http://www.chakan.net>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 513-196182-13-105 / 국민 032901-04-181772 / 농협 301-0011-3418-11 / 신한 140-008-341200

Contents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

04 나눔과 기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

현장 속으로 1

06 거리청소녀 희망 걷기여행 '동행'

08 행복을 그리는 '카투니스타'

현장 속으로 2

10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소해요

12 일자리를 얻고 난 후 자녀교육이 가능해졌어요

13 일자리는 제 꿈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인터뷰

14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성공 사례

“(주)푸른환경코리아, 전 직원 동참 이끌어 내”

재단 소식

16 재단 동향

독자 참여

18 기부금 소득공제 Q&A



Coverstory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족자카르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정정 합니다>

함께+19호에 실린 08쪽 Light a lamp의 프로젝트 지원영역에 “지역사회 자치체계 프로젝트”를 “지역사회 지지체계 프로젝트”로 정정합니다.

성산 두물마을 축제

▪ 일시 : 2015년 10월 17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5시

▪ 주최 : 유족제준비위원회 '나눔회'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 기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

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조지혜 과장

‘나눔’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지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은 무엇인가에 대해 짧지만 의미 있는 글을 요청드렸습니다. 후원자분들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나눔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포구 성산2동에 위치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조지혜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딸 아이를 재워두고 본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지난 시간들이 아슬라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사회복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형광색의 조끼를 걸친 기업의 임직원들이 김장김치, 연탄 등을 지고 비탈진 언덕 좁은 계단을 지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기사 속 사진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답하곤 합니다.

앞선 이야기 모두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 지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나누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를 위해 김장을 할 때 김치 한 포기 더 만들어 나누는 것, 새해 첫 날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하고 덕담과 세뱃돈을 받는 것, 아침마다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흔히있는 나눔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분들 또한 그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회복지관, 또는 나눔이란 어떤 특정 사람이 다른 특정 사람에게 일방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어렵던 일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06년 봉사활동으로 처음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어두운 모습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만난 아파트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소 거친 언행을 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활기차고 주민들의 관계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아동·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또한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만났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 직장인이 되어 찾아오니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한 그 당시 처음 만났던 한 청소년이 떠오릅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열심히도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던 한 아이.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청소년공부방을 다니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꾸던 아이였습니다.

휴대폰의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리던 어느 날, 그 청소년의 어머니에게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을 찾은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걱정스러운 음성에서 착하고 성실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백방으로 연락해 알아보던 중 어느 초등학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달려갔

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보니 그 날, 술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안의 물건을 부수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이후 신입 사회복지사였던 저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소년공부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와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자원봉사 친구들은 흔쾌히 누나, 형으로서 한 아이의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수학여행 비용을 내지 못해 홀로 학교에 남아서 자습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멘토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전달한 일입니다. 고마워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기부자와 대상자가 아닌 누나로서 형으로서 동생을 아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는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성인이 된 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해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자 복지관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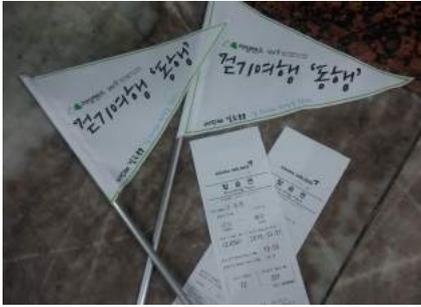
오늘도 나눔가게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러 오는 아주머니,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할머니, 행복한도서관에서 책임기 하는 모임까지 복지관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성이 모여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나눔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듯 나눔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과 기부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WT

거리청소년 희망 걷기여행 ‘동행’

글. 러빙핸즈
최영화 활동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스마트폰, 페이스북과 마주하던 생활과 단절하고
하루 30km, 한 달 500km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걷기여행이 시작됩니다.



길 위에서 희망을 찾다

(걷기여행 13일차, 울진에서 영덕으로 넘어가던 즈음) 조금 전 마주 지나갔던 차 한 대가 방향을 돌려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 어디까지 걷는거야? 이거 주고 싶어서 차를 돌려어~.” 소박한 웃음과 함께 건네주신 음료수 두 캔. 그날 저녁 윤재(가명)에게 오늘 가장 기억나는 생각과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물으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음료수 주셨던 아주머니요!”

부모가, 사회가 자신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윤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긍정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의 따듯함이 쌓여갑니다.



‘가출청소년’, ‘문제아’로만 불리던 친구들, 이제는 스스로 조차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던, 희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던 친구들 마음 한편에 희망의 싹이, 새로운 계절이 만들어 지는 듯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러빙핸즈의 걷기여행 ‘동행!’ 동행은 교육받은 동행지도자와 청소년이 떠나는 일 대 일, 한 달 여의 장기간 걷기여행입니다. 스마트폰, MP3, 페이스북 없이 떠나는 한 달의 시간은 청소년이 이전에 경험하던 거리의 삶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해주며, 하루 30km, 한 달에 500~600km 이상의 거리를 걸으며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 중 스스로 묻는 질문들과 매일 적어가는 일기를 통해 세상이 만들어준 왜곡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알아요. 여행이 나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행은 핑계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해내야지. 내가 변해야죠.”

“에잇 열여덟!! 내가 이것도 해냈는데 못할게 뭐야!!”

여행중의경험이삶의일부가됩니다

하루 30km. 이루어 낼 수 없을 것 같던 목표를 성취해가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갈 무렵 동행의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행 초반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면 여행의 후반부에 의미 있던 ‘경험’들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언제나 문제아, 가출청소년으로 자신을 생각하던 청소년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가출청소년’은 없습니다. 여행자, 도전과 성취를 이루어 내고 있는 모험가로서의 삶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합니다.

여행의 끝인 지점, 일상으로 돌아온 청소년과 동행 지도자는 여행의 시간 동안 꿈꾸고 다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새로운 동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WT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만화라는 콘텐츠를 통해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과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그리는 ‘카투니스타’

글. 라온스
최은영 대표



가족이 있어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민(가명)이는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월 소득은 한 달 200만원이지만 월급의 대부분은 아빠의 유흥비로 사용되며 정민이와 동생의 실제 생활비는 2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4살의 정민이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라면을 사서 동생과 한 달을 버팁니다. 그런 아이에게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이죠. 작은 도화지 안에 예쁜 사람과 배경을 그리는 것만으로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관련 분야 진로탐색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대한적십자사 은평·서대문 희망나눔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함께일하는재단의 2016 아동·청소년자립지원사업 'Light a Lamp'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1기 첫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참여 대상의 범위가 있어 사업에 신청을 한 학생은 겨우 15명뿐이었어요. 첫 수업은 아이들끼리 서먹하고 해당 수업을 처음

“이번 경험이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의 씨앗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접해보는 탓인지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있는 주말마다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아이들은 점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연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도 생기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만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하여 총 15회의 수업 동안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넘은 59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진로와 적성탐색, 만화학습, 현장학습 등 각자의 목적을 띤 프로그램 안에서 만들기, 그리기, 부천국제만화축제,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장편 애니메이션 관람, 현업작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에 그린 그림을 선정하여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국제만화축제 ‘온라인 BICOF’ 작품대회 참가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와 변화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함께 그리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된 희진

(가명)이, 만화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긴 철웅(가명)이, 만화가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윤민(가명)이, 크리에이터가 꿈인 예진(가명)이,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자신이 그린 작품을 부모님과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는 발표회 날, 본인의 그림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재잘거리며 나중에는 더 잘 그리고 싶다는 결의를 다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꾸준히 노력하며 그려왔던 자신들의 결과물이 발표회를 통해 보여지는 데 다들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의 씨앗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wit**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소해요

글. 국제협력팀 엄인숙 팀장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STP)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아동빈곤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빈곤아동에게 교육, 급식,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TP 사업 가운데 필리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아시아(CAMP ASIA inc.)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CAMP ASIA inc.와의 만남은 2010년부터 시작됩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이하 STP) 1기 기관으로 함께일하는재단과 첫 인연을 맺었어요. CAMP ASIA inc.에서 운영하는 ‘캠프봉제센터(CAMP Sewing Center)’는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도시빈민, 불라칸주 타워빌 지역의 강제철거 이주민과 모자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익팅유기농농장(Igting Organic Farm)’입니다. 유기농 양계농장과 양돈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제2의 새로운 꿈의 장소로 변화하는 캠프 자립마을은 미뉴안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타워빌 제 6구역인 가야가야 마을입니다. 캠프는 미뉴안뿐만 아니라 가야가야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지역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의한 이주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마을의 가장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닐라 항만으로 이동해 노숙을 하며 막노동으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하루 6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와 교통비 등의 부담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정으로 돌아오는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불확실한 일거리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기 어렵고, 장기간 별거로 인해 가정해체와 새로운 동거(결혼) 등의 사회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과 영양부족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후원금으로 단기적으로는 유기농 자연양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유정란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유기농농장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일자리와 빈곤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만드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 여러분의 꾸준한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WT**



- 01 익팅유기농농장의 양계 모습
- 02 익팅유기농농장의 닭이 낳은 유기농 유정란
- 03 캠프봉제센터 노동자의 모습
- 04 캠프봉제센터에서 만들어진 제품





글. 호시조라투어 앤 트래블
(Hoshizora Tour & Travel)
수카(Sukar)

정리·번역. 국제협력팀 박제휘 인턴

일 자리를 얻고 난 후 자녀교육이 가능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호시조라에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수카(Sukar)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호시조라는 인도네시아 칼라키조(Kalakijo) 마을에서 관광업을 시작하여, 여행객이 늘어나자 ‘잉쿱자와(Ingkung Jawa)’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수카 씨는 이 마을에서 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식당이 처음 개업했을 때는 찾기 어려운 위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마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일을 해온 결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60달러 밖에 되지 않던 수입이 150달러가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카 씨는 2012년 막내딸이 도시에 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 하나의 입학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그저 학비를 낼 생각이 막막하여 딸의 입학을 반대했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랐지만, 일을 시작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지금은 손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관광사업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때 이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데도 잡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더 풍요로워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WT



12 함께+20호





글. 와카미(Wakami)

빌마(Vilma)

정리·번역. 국제협력팀 박제휘 인턴

일자리는 제 꿈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빌마(Vilma) 씨는 과테말라의 ‘칸톤 루이지아나(Canton Louisiana)’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23살의 청년입니다. 그녀는 현재 아버지 대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와카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미는 액세서리 제작·판매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어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빌마 씨는 그곳에서 매일 동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꿈꾸던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꿈은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제 부모님과 언젠가 제가 이루게 될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사랑과 깨끗함으로 가득차고, 모두가 함께 정돈된 초목과 풍요로운 물을

누리는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마 씨는 와카미에서 많은 생산자들을 만나 교류를 하며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준 와카미가 그녀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WT**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성공 사례

“(주)푸른환경코리아, 전 직원 동참 이끌어 내”

작성·정리. 경영기획팀 민세희 매니저

사진. 경영기획팀 심재군 매니저

질문. 경영기획팀 김연수 매니저

답변. (주)푸른환경코리아 김기만 이사, 김영철 부장

‘내일에서 on 편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부를 제안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연결의 힘’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내일을, 청년들에게 밝은 나의 일을 찾아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호에 인터뷰 하게 된 기관은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10명을 완성한 첫 성공사례이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적기업 ‘(주)푸른환경코리아’입니다.



왼쪽 (주)푸른환경코리아 김영철 부장
오른쪽 (주)푸른환경코리아 김기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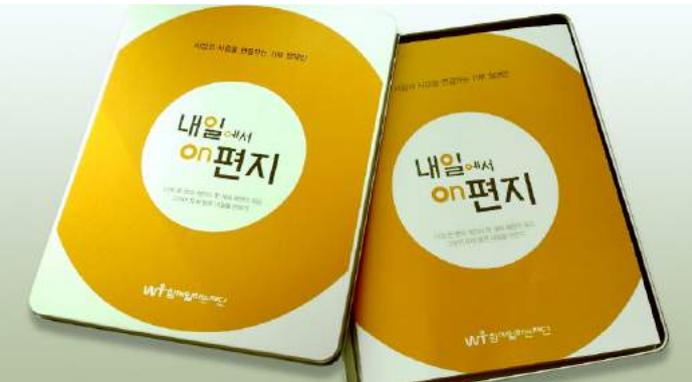
Q ‘내일에서 on 편지’로는 처음으로 10명의 릴레이를 통한 모금을 완성하신 기업인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시설관리, 청소, 경비, 근로자 파견 등 건물관리를 하고 있고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어요. 당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상계동, 봉천동, 신림동 등지는 철거가 많아져 도시빈민, 철거민들의 생계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처음에는 푸른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들과 함께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10명의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을 확장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Q 함께일하는재단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저희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10년 간 활동했고, 이전에는 함께일하는재단의 사업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재단에서 모금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평소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만 했지, 실천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 김기만 이사님에게 ‘내일에서 on 편지’를 전달 받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Q 회사 직원 전체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기부문화 확산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평소 직장 내에서 조직 간, 직원 간 기부와 나눔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회사 차원에서 봉사는 하고 있었지만, 소액 기부의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직원들에게 제안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을 때 동질감을 느꼈어요. 평소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담배 한 갑 아껴 사회에 공헌하는 데 사용하자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 기부문화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본사 직원들만 참여했지만, 저희의 결과물을 보고 유관 조직으로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Q 평소에도 회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 저희 회사는 현장 근무자들이 팀을 이뤄 특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장학금이 필요한 곳에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는 일들도 하고 있죠. 지난 달에는 노인시설을 청소해주고 왔고, 장애인법인 '함께걷는 길벗회'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또한 과천 독거노인들에게 집청소와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곳에 자원봉사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와요. 저희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Q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A 저희가 모금한 기금은 아동·청소년 사업에 쓰이는 것

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지원사업은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단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저소득 가구의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러한 곳에 우리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해 봅니다.

Q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내일에서 on 편지'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홍보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일단,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의 기금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기업의 사연들이 모이고 사업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여진 기금 액수와 후원자들의 사연을 영상으로 찍어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면 홍보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부란 무엇이고, 기부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저는 기부라는 말보다 아직은 '나눔'이라는 말이 친숙한 것 같아요. 기부는 대기업이 고민없이 연례 행사처럼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 '나눔은 개인이 금액의 액수보다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기업의 기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의 기부라면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wf**



재단 동향

‘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 포럼 개최

함께일하는재단과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자리 관련 포럼이 11월 4일(금), 함께일하는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8번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세부 논의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유한킴벌리, 경험자가 직접 기업 평판을 작성하는 구인구직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정확한 맥을 짚어 준 한국노총,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가능성을 확인한 사회투자지원재단 등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함께일하는재단을 포함해 한국인권재단, 한국여성재단, 지역재단, 환경재단과 같은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5개의 비영리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STP사업 5기 파트너기관 공모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파트너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한 달 간 서류 접수를 받은 결과 15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총 33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지역자원 활용 능력,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2개의 제안서가 서류심사 적격 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베트남, 태국, 우간다 등 8개 국가에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기관의 실체 확인 및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시행 단체의 운영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된 기관은 2017년부터 최대 3년까지 사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년 니트 지원사업 ‘내 일-내일 프로젝트’ 개시

함께일하는재단은 케이투인터네셔널(K2 International)과 함께 구직활동을 안하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심어주는 ‘내 일(my work)-내일(tomorrow)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이 없는 만 20~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음악과 요리, 일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심어주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와 스텝들은 일 대 일로 관계를 맺으면서 참가자가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이 프로젝트가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12월 9일까지)**

세상과 나를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외활동에 관심이 있는 열정적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평소 공익활동이나 사회적경제(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포터즈는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http://hamkke.org/supporters>)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재단의 온라인홍보(취재 및 기자단)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홍보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서포터즈 선정 결과는 12월 19일(월) 16시,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
2차 보수 교육 진행**

지난 11월 3일, 함께일하는재단 교육장에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 2차 보수 교육을 위해 30명의 시니어케어매니저가 모였습니다. 10월 팀별 활동 내용과 사례를 공유하고 11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인지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업무 분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강사, 보조강사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두루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시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양천구 소공인협동조합
성과공유회 개최**

평생 가방만 만들던 장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양천가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양천가방협동조합 사업 추진 성과공유회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해서인지 양천구 신월동에는 가방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생산기지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일감이 사라지면서 그 많은 소공인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가방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처음 협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활동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LANNT”에 대한 설명과 시제품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아직 매출 순이익으로 협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빠듯하지만 서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Q&A

연말이 되면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기부 후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평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질문. 경영기획팀 민세희 매니저

답변. 경영기획팀 김연수 매니저



Q 함께일하는재단 후원금에 대한 공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함께일하는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범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개인은 기부금의 15%(기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지난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혹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고 해당 연도에 제공받지 못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강화와 투명한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만 발급됩니다. 허위발급 시 발급기관뿐만 아니라 발급대상자도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후원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 이름으로 내 후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후원자님의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 명의변경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기부자관리팀(02-330-0744 혹은 0715)로 연락주시면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기부금영수증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A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에서 후원자님께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 받으시거나, 기부자관리팀(02-330-0744 혹은 0715)으로 문의 주시면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변경된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후원자님들께 배송하는 소식지는 제작비와 발송비를 포함해 1인당 약 2,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아낀다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및 해외 빈곤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소식지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식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전용 전화번호 1544-0190 / 담당자 E-mail give@hamkke.org

연말기부금 소득공제

2016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 회원님, 올 한 해도 (재)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후원 회원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전에 확인하셔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 경영기획팀 송원규 매니저

1. (재)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

연말기부금 소득공제 배너 클릭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정보 미입력, 오입력 시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www.hometax.go.kr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조회 및 출력

- 서비스 오픈예정은 2017년 1월 중순입니다.
-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함께일하는재단 기부금 내역이 반영됩니다.

3. 발급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1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대해 후원 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부금 유형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번호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1)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3천만 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2) 법인(기준소득금액) X 10%

4. 문의

경영기획팀(02-330-0744, 0715)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우편비용 절감을 통해서 더 많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을 원하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딜럽(D’LUV)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그리고 싶습니다”

딜럽(D’LUV)은 Draw + Love의 합성어로 ‘사랑을 그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의 그림을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패턴화 하고,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 등에 적용하여 ‘착한 소비’와 ‘소비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을 만들어 가는 패션브랜드입니다.

주력상품으로는 스트리트 패션 티셔츠와 후드, 스웨트셔츠 그리고 볼캡과 스냅백, 핸드폰케이스, 가방까지 다양합니다. 딜럽의 제품명은 실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이름이며, 제품 판매 수익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캄보디아 깜봉짬 지역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무신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과 패션감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